

전주 첫 마중길 '아시아 도시경관상'

사람을 위한 거리 만들겠다는 생태도시적 지향 담아

전주시가 추진한 첫마중길 조성사업이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아시아 인간주거환경협회,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도시경관분야 최고의 국제상인 '2017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0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해마다 그 권위와 명성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각국 도시들이 앞 다퉈서 참가하고 있는 상으로, 국내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 부산 감천마을 등이 경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주시는 '첫마중길 조성사업'으로 응모해 지난 6월 국내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랐으며, 지난달 27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된 결

선심사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본선에 오른 도시는 아시아 8개국 53개 도시이며, 이 가운데 13개 도시가 경관상을, 2개 도시가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는 전주를 비롯, 서울과 부산이 경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환경과 활력 있는 도시경관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도시경관 형성에 훌륭한 실적을 쌓아 널리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주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850m구간에 추진한 첫마중길 조성사업은 황량하고 생기 없는 전주역 앞 도로를 살리기 위한 경관개선의 목적,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심어 주는 도시홍보의 목적, 자동차를 위한 도로보다는 사람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생태도시적 지향을 담아 전주시가 전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또한 시민희망나무 현수를 통해 노티나무 가로숲길이 조성됐으며, 지역예술가들이 디자인하고 제작한 예술정류장, 아이들을 위한 워터미러,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지난 4월 공식 개통 이후 하루하루 달라지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8차선 직선도로에서 6차선 곡선도로로 선형이 바뀌고, 중앙에 보행광장로가 조성되면서 개통 초기에는 우려의 시선도 많았지만 이번엔 권위 있는 '2017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함으로써 국제적인 경관

도로로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생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방향을 유엔과 아시아 각국 전문가들도 인정해준 셈"이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예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전주를 가꾸어서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 아시아도시경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7~29일까지 중국 은천시에서 '아시아 도시경관포럼'을 겸해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 도시별 홍보부스 설치 및 시티 프로모션 기회 제공으로 전주시를 아시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용 기자

전주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7일~9월 27일까지

전주시는 오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와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조사 대상으로, 통장 및 통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제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방문조사하게 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

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재용 기자

노일 일자리사업 참여자 11일까지 모집

전주시 덕진구, 450명

전주시 덕진구는 '2017년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50명을 오는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개선, 사회적관계 증진, 소득 보충 등의 지원을 하여 노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덕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1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제외한다.

이번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사업의 참여자로 선발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환경 취약자를 중심으로 주거 및 생태환경에 대한 정화업무를 실시하고, 월 30시간씩 활동 후 27만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안재용 기자

서부신시가지 상가 고객,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불법 주·정차 일부 해소 기대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앞으로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지역 상가연합회가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구입해 상가 이용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부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서부신시가지 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 상가연합회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주차장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가연합회는 공영주차장을 1시간 이용 정액주차권 10만매를 구입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 배부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인회는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고객들의 공영주차장 주차를 유도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전주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서부신시가지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를 위해 15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30여장을 게시했다.



"단일 공립 인문계 여고 설치하러"

3일 '부안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부안지역에 단일 공립인문계 여고를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시설공단에서는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유료주차장 6곳(460면)과 무료주차장 13곳(380면) 등 공영주차장 19곳(840면) 위치를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상가에 배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서부신시가지 등 교통혼잡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자전거교통순찰대 운영, 공영주차장 개설 및 홍보 등을 추진해왔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는 홍산, 라이브광장을 포함한 6개소 460면의

공영주차장 공간이 확보돼 있는 만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상인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늘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 한옥마을 식품위생업소 특별 지도점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꼬치구이 등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 4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무표시,무허가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경찰 지휘부 회의' 열어

전북지방경찰청장은 3일 오후 전북지방경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15개 경찰서장 등 전북경찰 지휘부 28명과 지방청 계장급 이상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조희현 전북경찰청장 주재로 '전북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전달하고 하반기 집중추진과제 및 치안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상으로 순찰 희망 장소를 수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 위험지역 환

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성폭력 근절, 노인·아동에 대한 학대·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별도의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내실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직비리,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8월~10월) 및 소상공인 비정규직 대상 감질환포 특별단속(8월~10월)을 실시해 근절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보행자우선,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목표로 논의했다.

/이삼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용